

배포 일시	2022. 5. 30.(월)		
담당 부서	철도국 철도정책과	책임자	과 장 박병석 (044-201-3634)
		담당자	사무관 박선영 (044-201-3638)
	철도국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	책임자	과 장 안재혁 (044-201-3964)
		담당자	사무관 이동호 (044-201-3981)
보도일시	2022년 5월 31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. 30.(월) 15:00 이후 보도 가능		

GTX 확충으로 꼭두새벽 출근길 전쟁에서 해방

- 국토부 장관 GTX-A 동탄역 공사현장 방문, 지역주민과 현장소통 -

- 원희룡 장관, “GTX 확충으로 국민의 출퇴근시간 돌려드리겠습니다” 약속
 - GTX-A 동탄역 공사현장을 점검하고, 사업의 적기이행과 안전시공 당부
-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30일(월) 14시 GTX-A 노선의 종착지인 동탄역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지역주민과 만나 GTX-A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.
 - 원 장관은 지난 4월 인수위 기획위원장 시절 GTX 건설현장 방문에 이어 장관취임 이후 재차 현장을 방문하여 GTX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.
 - 원 장관은 GTX-A 삼성~동탄 5공구 공사현장에서 사업의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, 지역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난 주 청년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현장 소통행보를 이어갔다.
 -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동탄 주민은 “동탄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지하철은 꿈도 못 꾸고, 광역버스를 타야하는데 이마저도 1시간 반이 걸린다” 며, “수도권 외곽지역은 주거격차 뿐 만 아니라 교통격차도 심각하다” 고 어려움을 토로했다. 그리고 “하루라도 빨리 GTX 개통을 앞당겨 불편을 해소해줬으면 좋겠다” 고 건의하였다.

- 이에 원 장관은 “GTX-A가 개통되면 현재 광역버스 요금 수준으로도 동탄부터 서울까지 2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다” 라며, “GTX-A의 적기 개통에 힘쓰겠다” 고 약속했다.
 - 한편, 평택 주민은 “평택도 상황은 마찬가지” 라며, “SRT가 있지만 요금도 부담스럽고 서울 시내 환승 때문에 불편해서 결국 광역버스를 타게 된다” 고 말하며, “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인 GTX-A 노선 연장을 꼭 이행해달라” 고 요청하였다.
 - 이에 대해서도 원 장관은 “GTX 사업은 수도권 교통난 해소뿐 아니라 좋은 입지의 희소가치를 분산시켜 근본적인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핵심 사업” 임을 강조하며, “기획연구를 통해 다양한 조기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돌려드리겠다” 라고 언급했다.
- 아울러, 원 장관은 현장에 있는 공사 관계자들을 독려했다.
- “GTX-A는 우리나라에 최초 개통하는 GTX 노선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크며, `24년 개통 시 수도권 대중교통체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매우 중요한 사업” 이라고 말하며,
 - 적기 개통을 위해 차질없는 공정관리를 요청하는 한편, 건설현장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하였다.
-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GTX-A·B·C 연장, D·E·F 신설 등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「GTX 확충 통합 기획연구」를 발주하였으며, 이를 통해 사업 타당성 확보, 공용노선 선로용량을 고려한 최적노선을 발굴할 예정이다.
- 이와 함께 GTX 노선 인근에 콤팩트시티 조성을 함께 검토하여 추가 수요와 재원을 확보하고, 역세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.
- 원 장관은 “이번 정부 내에 GTX-A 노선을 개통하는데 이어 B,C 노선을 착공하고 D·E·F 등 신규노선 발굴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GTX를 대폭 확충하겠다” 고 밝혔다.